

장백산천지

제 98 호

2008 년 8 월 15 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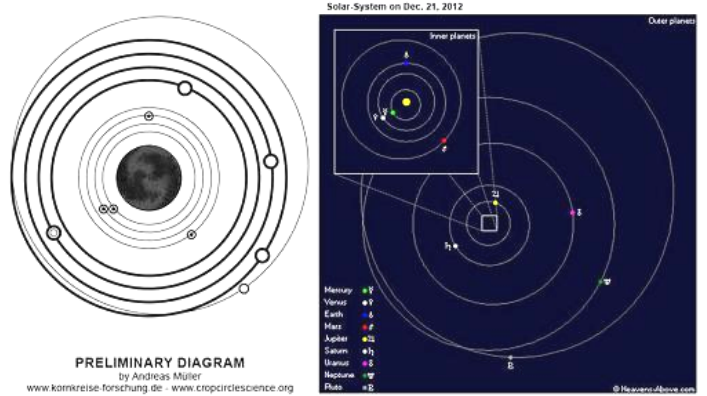
“밀밭동그라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시해 주고 있는가?



2008 년 7 월 15 일, 영국 웨트군의 에트-베리장원에 새로운 “밀밭동그라미”가 나타났다. (위 사진) 전문가들이 고찰한데 의하면 이 “밀밭동그라미”가 전하는 정보는 고대마야예언에 관련 된다고 한다.

외관을 분석해보면 이 “밀밭동그라미”도안은 태양계인데 중간은 태양이고 9 대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안에 새겨진 고리형 4 개 궤도의 항성은 각각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대표하고 바깥에 새겨진 고리형 4 개 궤도 행성은 각각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대표하며 제일 바깥층의 궤도의 항성은 명왕성을 대표한다. 이 도안은 매우 정확하게 태양계의 궤도와 운행궤적의 특징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이 “밀밭동그라미”



에서 나타난 9 대행성의 위치는 2012 년 12 월 21 일 동지를 똑똑히 가리켰는데 이것은 지금 2012 년에 대한 마야예언과 일치된다.

이 신비한 “밀밭동그라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시해주는가? 1995 년에 모 지방에 해충 재해가 일어나기전에 개미모양의 “밀밭동그라미”가 나타났고 1999 년에 나타난 “밀밭동그라미”도안은 고급현미경으로 본 사스병독모양과 같다. 올해 영국의 “밀밭동그라미”에서 나타난 2012 년은 마야예언과 일치된다. 이 신비한 “밀밭동그라미”는 분명 우리들에게 문명의 새 세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비록 세계말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화과정중에서의 겁난과 도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매개 사람들마다 곧 닥쳐올 대변혁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못 중요한 것이다.

풍작을 이룬 귤농사



나는 하북성 이창시 교구에서 귤나무를 기르는 농군이다. 예전에는 년수입이 1 만원도 안되었지만 지금은 해마다 2 만원이 넘었다. 촌민들은 나를 보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한 파룬궁학원이 가르쳐 준대로 귤나무과원에 들어설때

마다 “파룬따파가 좋다.”고 묵념했소.》라고 말했다. 나는 이 비결을 모든 농부들에게 알려주어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다시 인기를 끈 “파룬따파법선”

지난 7 월 26 일 저녁, 미국 시애틀 제 59 차 태양절 “햇불” 대시위행진에서, 지난해 “제일



훌륭한 창작상”을 탔던 “파룬따파법선”이 30 만 관중들의 인기를 유난히 끌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마치 중국고대신전문화의 고향으로 달리는 듯한 이 “법선”을 바라보며 중국어로 연속 “파룬따파가 좋다!” 라고 열렬히 환호했다.

미국으로 피난 간 중국만화천왕 곽경웅



곽경웅(郭竟雄)은 (아래사진)재능이 넘쳐나는 젊은 대학 교수로서 중국에서 제일 처음 만화계의 “오스카”(33 차프랑스 앙글레이 최고 특별 대상)를 획득한 중국사람이며 중국의 “영화만화천왕”의 영예를 지녔고 그의 작품은 (아래사진) 유럽 만화책판매에서 3 번째였으며 제일 처음 미국만화시장에 진입한 만화가이다.

곽경웅은 청년시절에 일본과 서방의 개인현대주의의 영향하에서 마음이 허전하고 고독하여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리하여 생명의의와 인생가가 있는 답안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서방철학, 도가, 불가에서 계몽되기 시작했으며 1996 년에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해서부터 진정 답안을 찾게 되었다. 그는 소박하고 성실한 수련인이 되어 가정생활과 사회사업터에서 “쩐싼런”을 지도사상으로 삼으면서 전례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또한박대정심한 조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작의 길을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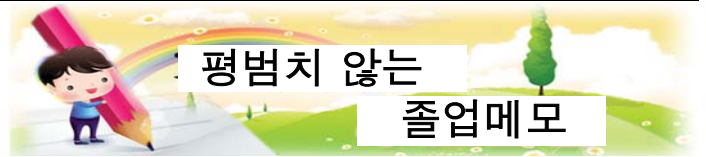
1999 년에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그는 시정부신방사무실에 상방갔다가 구류당했고 2007 년 11 월 29 일 장춘시국가안전국 악인들이 그를 랍치하여 벌서기, 끌어앉기, 자지 못하기 등 혹형을 감행했고 같은해년 12 월 16 일에 중공을 폭로한 만화를 그렸다는 리유로 20 년 판결을 하려하다 1 년동안의 표현을 보고 최후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해 온 그는 조국 땅에서 한평생 살고 싶었지만 중공의 박해로 인해 정든 조국을 떠날수 밖에 없었다.



연변박해소식

■ 안도현 량병대 파룬궁학원 모녀는 지난 7 월 29 일 북경에서 진상재료를 배포하다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안도로 압송되어 왔다.

■ 지난 8 월 5 일 저녁 8 시경에 화룡시팔가자공안국 국보대대 대장 축길성(祝吉成)과 몇몇 하북 파출소 악경들은 팔가자 파룬궁학원 오봉현(吳鳳賢)과 손경국(孫庆菊)을 랍치하여 8 월 6 일 오후에 화룡파출소로 압송했다. 즉각 박해를 멈춰라. 화룡시팔가자국보대대 대장 축길성: 139443302098



송선생은 퇴직한후 모 초급중학교의 초청을 받고 졸업반 수학을 가르쳤다. 장선생은 장범학생의 졸업메모장에 《조금도 득실을 따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아량이 있다.》고 써놓았다. 지난해 기중시험을 치른후 담임선생은 성적을 공포했다. 장범의 불합격 수학점수가 발표되자 전반급 학생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전 학급에서 제일 우수했던 장범이는 아무런 기색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이틀후 송선생은 수학시험지를 검사해 보니 장범이가 맞게 쓴 6 개 답안에 0 점을 주었던 것이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술을 가득 마시고 틀리게 매긴 것이 가책이 된 송선생은 장범학생을 찾아 가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장범은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쩐싼런”을 수련하는 파룬궁 꼬마제자입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신상을 닦아 명리를 담담히 여기며 사람들을 착하게 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범학생의 고상한 경지와 아량에 감동된 송선생님은 장범의 기념책에다 메모를 남겼던 것이다.

사돈이 된 부녀주임

나는 료녕호로도 남포구에서 사는 촌민으로서 파룬궁을 수련한지 12 년이 된다.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우리촌 부녀주임은 상급의 지시대로 대법제자를 감시하고 그들이 집문을 나서면 청가해라고 했다.

부녀주임은 나에게서 진상이야기를 듣고 진상자료를 보고 나서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중공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룬따파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 되게 가르켜 주고 백가지 리롭고 한가지도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늘에 순응하여 탈당성명을 발표했다.

어느날 출근한 그의 남편이 광산갱도에서 큰 광석이 그의 머리를 3 시간동안 짓눌려 있었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부녀주임은 진상을 알고 탈당했기때문에 대법사부님께서 남편을 보호해주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후 그는 자기 딸을 나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어 우리는 친한 사돈간이 되었다. 지금 나는 손녀를 보았고 며느리와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다.

